

천스닥 시대 맞았지만… 개미 매도 러시, 구조적 한계 숙제

W 천스닥

① 한국판 나스닥 열릴까

정책 모멘텀에 ‘천스닥’ 기록
매력적인 주도주 마땅히 없어
기업 머물 인센티브 정책 필요

“코스피를 보면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용현(55)씨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지난주부터 사흘동안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던 주식 4300만원어치를 전량 매도했고 털어냈다. 26일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넘어 ‘천스닥’ (코스닥 1000)을 기록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커보인다는 것이다.

천스닥 시대가 열렸지만, 개미들은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날 ‘코스닥 개미’ 들은 3조1000억원어치를 팔았다. 2거래일 동안 4조원 넘게 팔았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와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인식이 코스닥의 구조적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외에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머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코스닥 2부리그 한계 벗어날까

코스피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코스닥엔 주로 바이오, 중소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코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스닥 시장 상장 문턱이 코스피보다 비교적 낮다 보니 이날 기준 코스닥엔 1826개 종목이, 코스피엔 952개 종목이 상장돼 있다.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코스닥 정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코스닥 3000 돌파를 다음 목표로 제안했다.

‘왕개미’ 출신을 자처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코스닥 3000’ 이슈를 꺼내든 이유로는 코스닥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점이 꼽힌다. 26일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17.45% 올랐으나 코스닥은 15.01%상승했다. 코스닥 이슈가 나온 후 최근 3거래일 동안 11.89% 오른 영향이다.

그동안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투자할 종목이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코스

닥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등지를 옮기는’ 일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웨이, 포스코DX 등은 모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도 코스피로 옮길 예정이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이 모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는 대조된다. 코스닥은 본래 기술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1996년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의 나스닥’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는 반도체나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반면에 코스

닥은 매력적인 주도주가 마땅히 없다”며 “큰돈을 장기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2000년 ‘닷컴 버블’ 사태로 코스닥이 폭락했던 기억도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꺼리는 요인이다. 1999년 초에는 700선이었던 코스닥이 이듬해 3월 단숨에 역대 최고점인 2834.40까지 치고 올랐던 적이 있다. 인터넷이 급속 보급되면서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때다. 수많은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완화된 요건 덕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렇지만 닷컴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나스닥과 함께 코스닥도 급락했다. 2000년 말에는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약 80% 하락한 수준인 500선으로 가라앉았다. 이 당시 경험으로 ‘코스닥은 투기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외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0%에 달한다.

◆정부 ‘3000’ 립서비스에 그칠까

코스닥 정상화의 해법을 두고 상장사 사후관리 강화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공시는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고, 인공지능(AI)이나 우주, 에너지 같은 핵심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는 활성화하는 등의 육성 방안을 추진 중

이다. 이밖에 벤처기업과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등도 코스닥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 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는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코스피 5000 정책’에 이어 코스닥과 비상장시장으로 머니루브 정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계절성에서도 1월, 2월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지수가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편이며, 하반기에는 상대적 약세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5000선과 코스닥 1000선의 주요 지수대에 도달함에 따라 심리적 저항에 따른 과열해소와 매물 소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투자자들과 상장사들이 코스닥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코스닥의 체질이 금방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바뀔 필요가 있다”며 “월성부른 종목만 상장시키고, 혜택을 통해 지원해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천정부지 금값에 ETF 수익률 15% 경충

3개 은행 골드뱅크 잔액 2조 넘겨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 이어질 듯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공공행진하자 못침돈이 금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이달 22일 기준 골드뱅

킹 잔액은 총 2조1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조9296억원)보다 2198억원(11.4%) 증가했다.

3개 은행 골드뱅크 잔액은 지난해 3월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2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불과 10개월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은행을 통해 금 현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골드바 상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5대 은행에서 이달 1~22일 판매된 골드바는 총 716억7311만원어치로 집계됐다. 지난달 월간 판매액(350억587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이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같은 기간 판매된 골드바 중량은 286kg에 달해 지난달(133kg)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일부 은행은 수급 불안 문제로 개당 2억7000만원이 넘는 1kg 중량의 골드바만 취급하고 있지만, 실버바의 경우 가격 급등에 따른 품귀 현상 때문에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판매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금·은 관련 상품도 들쭉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KRX 금 현물’은 올해 들어 이날(26일)까지 15.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KRX 금 현물’은 15.08%, ‘KODEX 금 액티브’는 16.41%, ‘SOL 국제 금’은 15.89%로 모두 15%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 선물형 상품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TIGER 금은선물(H)’은 18.92%,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는 15.92% 상승하며 금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금값이 오르자 은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은 ETF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은값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선 후

1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금과 은 ETF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ACE KRX 금 현물’을 1400억원, ‘TIGER KRX 금 현물’은 666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KODEX 은 선물(H)’은 3776억원 순매수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금값이 연평균 5300달러 선을 유지하며 6000달러 이상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 독립 분석가 로스 노먼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값은 최고 온스당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평균 가격은 5375달러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지난해 펀드 순자산 1376조… 18년 만에 최대 성장률

모든 유형서 전년보다 증가

작년 12월 말 전체 펀드(공·사모)의 순자산총액은 137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투자협회 ‘2025년 펀드시장 결산’ 자료에서 따르면 작년 12월 말 전체 펀드(공·사모)의 순자산총액은 1376조3000억원으로 2024년 12월 말(1098조7000억원) 대비 277조6000억원

이 증가했다. 공·사모펀드 모두 전년 대비 순자산이 빠르게 증가해 전체 펀드시장은 2007년(31.9%)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25.3%)을 기록했다.

전체 펀드 기준 모든 유형에서 전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102조5000억원), 채권형(42조9000억원), 재간접형(28조2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증시 호조 등으로 전체 펀드 중 주식형 펀드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12.2%에서 17.2%로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펀드(공·사모) 기준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됐고, 총 168조9000억원이 순수하게 들어왔다.

작년 12월 말 국내 투자 펀드 순자산총액은 872조2000억원(전년 말 대비 174조9000억원 증가)으로, 전체의 63.4%(전년 말 63.5%)를 차지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원자력 ETF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원자력 TOP10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원자력 ETF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영업일인 지난 23일 기준 ACE 원자력 TOP10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2.30%로 집계됐다. 이는 ‘원자력’ 키워드로 상장된 국내 ETF는 9개 중 가장 높은 성과이



다. ACE 원자력 TOP10 ETF는 최근 1년 및 3년 또한 164.88%와 391.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원자력 TOP10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2년 6월 상장한 상품이다. /허정운 기자